

백승주 전 의원 울릉군 명예군민증 받아 20대 국회서 울릉공항 건설 주도적 역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안보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백승주(사진) 전 국회의원이 울릉공항 건설을 성사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울릉군 명예군민이 된다.

백 전 의원은 25일 경북 울릉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열리는 울릉군민의 날 행사에서 김병수 울릉군수로부터 명예군민증을 받는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울릉주민의 숙원이던 울릉공항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직항로 협의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자, 해군 및 공군을 상대로 훈련 구역 조정 등을 통해 협의를 도출해내는 쾌거를 이뤘다.

김병훈 기자 kbh7133@maeil.com

예천 출신 박서보 화백 '금관 문화훈장' 단석화 선구자·한국미술 추상화 알리



한국 미술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경북 예천 출신 박서보 화백이 문화계 최고 영예인 금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24일 예천군에 따르면 박서보 화백은 지난 22일 문화의 날을 맞아 열린 시상식에서 금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금관 문화훈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기 위해 1969년부터 매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를 선정하는 상이다.

박 화백은 '단색화'의 선구자로 한국미술 추상화를 세계에 알린 인물이다. 그는 홍익대 교수,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미술가, 행정가, 교육가 등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한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올해 만 90세인 그는 내년에 열리는 베니스비엔날레에 참가할 작품 작업에 매진할 정도로 여전히 예술가로서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이날 훈장에 외에도 박 화백은 2011년 은관 문화훈장, 1994년 옥관 문화훈장, 1984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한 바 있다.

윤영민 기자 yun1011@maeil.com

윤중리 작가 소설 '바람의 등지'로 '탄리문학상' 본상 수상자에 선정



윤중리 작가가 지난 9월 내놓은 장편소설 '바람의 등지'가 제4회 탄리문학상 본상을 받는다.

소설 '바람의 등지'는 교사 생활을 했던 작가의 자서전 같은 작품으로 코로나19 시국에 동료 이시백 선생의 부고를 들은 뒤 과거를 반추하는 내용이다. 작가는 소설집 '페스타로피 선생' '유패와 보석' '칼과 장미' '오렌지빛 가스등' 등을 펴냈다. 대구가톨릭문화재단, 대구소설가협회장을 역임했다. 대구문학상, 대구예술상도 수상한 바 있다.

김태진 기자 novel@maeil.com

아진산업·청도 풍각면 도농 상생 '아름다운 인연'



이승을 청도군수가 서중호(오른쪽)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모습.



경북 청도군 풍각면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아진산업(주) 임직원들이 23일 일손돕기에 나가 전 풍각면사무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북 청도군 풍각면과 1사1촌 자매결연을 한 경산의 아진산업(주)이 9년 동안 해마다 두 차례씩 농촌 일손돕기와 농산물 팔아주기 등에 동참하는 등 도농(都農) 상생의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경산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인 아진산업(주)과 풍각면은 2012년 12월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듬해부터 아진산업 임직원들은 매년 6월에는 양파 농가, 10월에는 청도반시 농가를 찾아 수확을 돕고 수확한 농산물도 팔아 주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진산업 임직원 250여 명은 23일 10여 명의 직조를 나눠 일손 부족으로

2012년 자매결연 이후 매년 2회 방문 농촌 일손돕기·농산물 팔아주기 활동

감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농가에서 청도반시를 수확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은 농가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해마다 점심식사를 회사에서 준비한 이동 식당에서 해결한다.

지난 9년 동안 매년 6월과 10월 두 차례 일손돕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아진산업 임직원들은 누적 집계로 4천500여 명에 이른다. 또 일손돕기 후 1천만원여치의 양파와 청도반시를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이 밖에도 아진산업에서는 풍각면민들을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내복 나눔과 전통시장 장보기, 사랑의 연탄 나눔, 풍각면 청년회 가을 음악회 후원 등을 했다.

이승을 청도군수는 이날 아진산업 서중호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군수는 "아진산업이 9년 동안 매년 두 차례씩 청도군 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서중호 대표는 "앞으로도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청도 풍각면과 민민들을 위해 꾸준히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글 사진 김진만 기자 factk@maeil.com



'엔택트 달서 하프마라톤 대회' 지역 업체 이웃사랑 1천만원 후원

대구 달서구청(구청장 이태훈)은 22일 구청 장실에서 대구 달서구체육회(회장 윤영호)가 '제15회 엔택트 달서 하프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자 2천 명 기준으로 지역 업체가 자발적

으로 후원한 이웃사랑 후원금 1천만원을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후원금 조성에는 (주)경희달미(대표이사 오준세),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지사장 임

신영), 달서경제인협의회(회장 진덕수), 유니크(대표 최재기), 동신철물(대표 신동규)이 참여했으며 후원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제15회 엔택트 달서하프마라톤 대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지난해처럼 비대면 방식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14일간 개최했다. 윤영호 달서구체육회장은 "마라톤 대회로 조성한 후원금이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체육인들이 기부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후원금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탁받은 후원금은 달서사랑 365운동 후원 시스템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환 기자 rehwan@maeil.com

안동과학대 '산학협력 우수사례 대회' 바이오백신 인력양성 발표 '최우수상'

안동과학대학교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2021년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력양성 부문에서 교육부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동과학대는 '바이오백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 공동 교육' 운영 사례로 인력양성 부문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안동과학대는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등 우수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으로 바이오백신 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공동 교육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산업체에서 바이오·백신을 생산하는



현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축해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산업체 참여형 현장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등 지역 우수 기업으로의 취업 확대와 지속적인 협약기업 취업률 향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인물 수첩

이재업 성공관유도회 경북도본부 회장



이재업(67) 경북유교문화회장이 22일 제19대 성공관유도회 경북도본부 회장으로 당선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 회장은 "최근 호계서원 퇴계 선생 위패 철패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영남유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현대사회가 넣고 있는 온갖 불평부당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취임 소감을 밝혔다.

2021년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 시상식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코로나 극복' 수상

경상북도의사회는 22일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이 경북도민의 날을 기념해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2021년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 시상식에서 '코로나19 극복' 부문 도민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경북의사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감염병 확산 저지와 인자·물적자원 지원(방역용품 조달), 코로나19 코호트 격리시설 환자 진료 및 처방 협조, 확진환자 입원 대기 및 생활치료센터 확진환자 관리, 착한 임대인 동참 및 우리 농산물 구매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코로나19 방역 대비를 위한 감염병 교육 실시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운조 기자 hanyunjo@maeil.com



박재서 영양군체육회장 '지역 발전' 수상

박재서 영양군 초대 민간 체육회장이 22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2021년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 발전 부문 도민상을 수상했다.

박재서 회장은 영양군 탁구연합회장, 영양읍 체육회 이사, 영양군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을 맡아왔으며, 2020년 1월 영양군 초대 민선 체육회장에 취임해 각종 체육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오랜 기간 지역사회 체육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2020년 4월에는 영양군체육회에서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태권도장 2곳에 각 50만원씩을 기부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임재진 기자 jinee@maeil.com

김인수 계명대 동산병원 신경외과 교수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26대 회장 선임



김인수 계명대 동산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인천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4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세계적추추학회 제26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1년이다.

김 교수는 계명대 동산병원 신경외과장 및 주임교수, 대한신경외과학회 대구경북지회 회장, 대한척추신경외과 기조연구회 회장,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구경북지회 회장, 대한신경손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운조 기자

오늘의 운세 10월 25일(음력 9월 20일) 더사주 인스타그램 제공

- 쥐 쥐 36년생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하겠지. 말 오를만단내가 저 쥐야 끝날 수 있어요.
 소 소 37년생 자녀가 좋아하는 사람은 부모도 좋게 봐줄 수 있어야 하겠지.
 범 범 38년생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해.
 토끼 토끼 39년생 마음 상한다.
 용 용 40년생 건강을 떨쳐야.
 뱀 뱀 41년생 돈을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말 말 42년생 할 일을 하려고.
 양 양 43년생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엔 아직.
 원숭이 원숭이 44년생 경쟁은 뒤로.
 닭 닭 45년생 모든 일에.
 개 개 46년생 칭찬을 듣.
 돼지 돼지 47년생 도와주고.